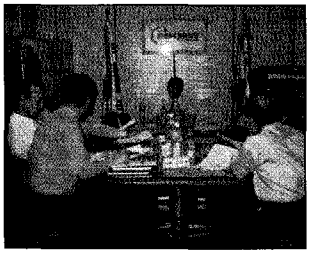
협회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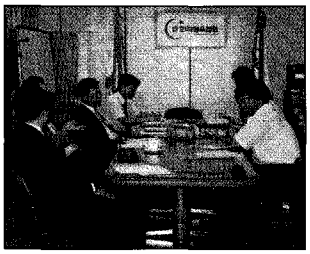


제6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및 제7차 닭고기 유통개선 소위원회 개최 병아리 공동구매 방안 검토

본회(회장 김홍국)는 지난 7월 22일 본회 회의실에서 제6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와 제7차 닭고기 유통개선 소위원회를 함께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병아리 공동구매방안, 도계육 D/C 관행폐지 추진 등에 대한 사항이 논의되었다.

병아리 입식조절에 대해서는 종계 조기 도태 등 회원사가 자체적으로 조절키로 했으며, 병아리 공동구매에 대해서는 우선 우수한 종계 · 부화장 1~2곳을 선정하여 병아리 공동구매 방안을 검토 후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한편, 도계육 DC(덤핑) 관행폐지 추진안건에 대해 거래상황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갖자는 데에 전원이 동의했으며, 현재 참석하지 않은 회원사들의 의사를 집행부에서 확인 후 가까운 시일내에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제8차 긴급 닭고기 유통개선 소위원회 개최 육계가격 폭락에 따른 대응방안 논의

본회는 지난 7월 26일 본회 회의실에서 제8차 긴급 닭고기 유통개선 소위원회(위원장 서대진 마니커 부사장)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7~8월은 연중 닭고기 최대 성수기인 복(伏)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육계가격이 생산비 이하의 절반 수준인 500~600원대에 형성, 가격하락을 방치할 수 없다는 데에 따른 것으로 닭고기를 수매비축키로 결정했다.

이에 본회 회원사에서는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육계 50만수를 일반 육계사육농가에서 구매하여 비축에 들어갔다. 이외에도 본회에서는 앞으로

병아리 입식감축, PS 및 GPS 감축 등 중 · 장기 계획도 추진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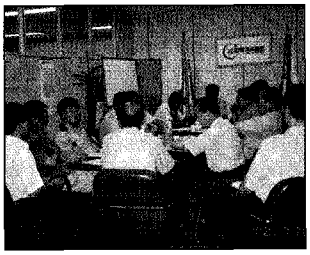
닭고기 소비확대 홍보사업 대폭 강화
요리카드 30만장, 요리책자 30만5천부 제작 배포

본회는 최근 과잉생산으로 인한 육계가격 폭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계 및 계육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육용 병아리 입식을 최대한 자제하는 한편 3/4분기 이후로 예정됐던 국내산 닭고기 소비확대 홍보사업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사업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닭고기 요리카드 30만장을 조기에 발주, 지난 7월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배포했으며, 닭고기 소비홍보 포스터 1만2천장을 2차로 제작, 외식업체 각 체인점 및 회원사 닭고기 판매장 등에 배포했다.

또한 여성종합지인 '여성중앙 21'과 요리전문지인 '에쎈' 8월호의 부록별도 책자에 닭고기 요리 및 우수성 소개, 닭요리 전문점 등을 수록하여 책자 30만5천부를 협조제작, 소비자에게 배부했다. 아울러 본회는 9월 이후로 예정됐던 매체(라디오, 지하철)광고를 조기에 실시키로 하고 세부계획마련에 착수했다. 이번에 전개되는 닭고기 홍보사업의 주요내용은 국내산 닭고기의 우수성 및 안전성, HACCP마크, 본회 품질보증마크 등이다.

제6차 계열생산책임자회의 개최
병아리 수급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



본회는 지난 7월 30일 본회 회의실에서 제6차 계열생산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육계질병 및 수급정보의 교환, 병아리 수급안정 방안, 상반기 사육성적 분석 등에 대한 내용이 논의됐다.

병아리 수급안정 방안에 대해서 우선 병아리 거래 표준계약서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를 시행키로 하고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각종 기준에 대한 의견제시(규격, 가격, 보증금, 결재방법, 품질, 시서, 분쟁조정 등)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표준계약서(안)을 작성하여 검토키로 했다.

상반기 사육성적 분석에 대해서는 육성률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지난해에 비해 성적이 향상됐으나, 3월에는 질병발생으로 인해 대부분 회원사의 사육성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타 안건으로 현재 협회 홈페이지에 올려진 있는 종전의 생계시세보다는 닭고기(지육) 시세를 게재하며, kg 가격을 표시하자는 안에 대해 모두 찬성했다.